



※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6. 12. 13.

금 융 위 원 회

1 최근 금융시장 상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자본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美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유럽의 정치일정, 중국의 외환대응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난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정국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자그마한 이슈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한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전방의 파수꾼이자 방파제로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자본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자본시장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강화

여러분!

우리 자본시장에는

‘98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꺾직한 위기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기에 발빠르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자본시장의 안전망을 가다듬고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오히려 위기를 **성장·발전의 기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 수준으로

손색이 없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개혁의 중점을 자본시장에 두고

5+1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공모펀드 활성화(4월), 회사채시장 활성화(7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8월),

상장·공모제도 개편(10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11월)

방안들을 발표·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의

기본 방향과 틀을 마련한

“자본시장 개혁이 쉴 틈 없이 계속된 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자금 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고,

경기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실물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자본시장이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3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방안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때에는

자본시장을 투자가 아닌 투기의 장소로 생각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하여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장감시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첫째,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을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금주 중으로 구성하여

긴밀한 공조체계하에 “**무기한으로 운영**”해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특히 대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F에서는 루머확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경보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혐의는 빠른 시간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질서확립 T/F 내에는

최근들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도 가동하여

사이버루머 등 허위풍문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존의 사이버 시장감시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상거래와 신형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장감시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 등을 초기단계에서 적발하고

혐의발견시 즉각 심리·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4 관계기관 당부사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장질서확립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찰과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금감원, 거래소 등 관련기관도
개별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은
시장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투자자 **제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소 **시감위원회**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예방조치, **투자유의안내** 등을 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뿐 아니라,

이상급등종목을 옮겨 다니며
이상매매행태를 보이는 **계좌**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리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이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투자업계가
시장과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외국분석기관의 **국내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균형된 시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전문가는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위험을 관리한다.”고 하는 만큼

다양한 리스크속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업계가

시장 · 산업 · 기업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자문하는

리스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마무리 말씀

중국 관윤자(關尹子)에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새가 결국 배를 침몰시키듯이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면 큰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거없는 작은 루머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해

초기부터 물샐틈없이 대응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